

# 임용단기 합격 후기

## 경기 역사 남새미 선생님

과목명 | ( 교육학 ) | 스터디 여부 | ( O ) | 단권화 여부 | ( O-암기카드 )

당연한 말이지만, 교육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전범위를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늘 당연한 걸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ㅠ)  
 2018년 교육학 공부는 무계획했습니다. 언제나 전공이 훨씬 비중도 크고 공부량도 훨씬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전공 공부하느라 교육학에 투자를 덜했습니다. 그런데 다년간의 교육학 공부 축적으로 무난하게 시험쳤습니다.(물론 여전히 암기가 부족해서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 교육학도 3학년부터 인강을 들으며 내용정리를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3학년 때 같은 학년 동기, 선배들과 교육학 인강을 함께 듣기는 했지만, 열심히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재학생 시절부터 땀공하셔서 일찍 합격하세요!!

그리고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여름까지는 틈틈이 교육학 암기카드를 작성했는데,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기껏 만들어놓고 다시 본 기억이 없.....)

마지막 2달 동안 아침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며 조금씩 내용을 복습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 된 것 같습니다. 교육학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를 풀며 복습하고 실전 연습도 해야겠죠. 그러나 혹시 시험 직전까지도 본인이 문제를 풀 자신이 없다면, 무작정 문제를 붙잡고 있기보다는 기본 이론과 개념 학습 위주로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다시 저의 공부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험 전 마지막 2달 동안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모범답안 및 관련 내용 정리 자료를 읽었습니다.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를 정식으로 작성한 것은 7회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개요만 작성했습니다.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문제 풀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통하여 내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한 후,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를 발휘하여 내가 아는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고, 아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완하세요. ㅎㅎ(전공 교육학 모두!)**

그리고 시험 전 열흘 동안 지인과 매일 오전 8시 교육학 짝스터디를 하며 파이널 자료를 빠르게 1독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논술형 시험 특성상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아예 못 적고 나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교육학 논술 시험지를 보면, 크게 4가지 파트에서 출제되며, 누구나 평이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섞여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평이한 내용(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열심히 공부한 부분)은 자신 있으니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공부를 덜한 부분, 생소한 이론)이 나오면 한 글자도 못 쓸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교육학 교재 전체를 2번 이상 읽었다면, 정확하게 암기하여 인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맥락과 서술 방향은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 교육학 논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장에 가면 뭐라도 적게 됩니다. ㅎㅎ

생소한 이론이 출제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시문에서 그 이론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제시문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 이해와 인출, 적용이 필요합니다. 항상 특정 이론의 핵심 내용과 키워드를 생각하며 공부합시다!**

채점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서술하는 연습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체로 서술하는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수험생인 본인도 헛갈리고, 내용도 핵심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글씨체도 웬만하면 알아보기 좋게 깔끔하게 씁시다.

과목명 | ( 전공 역사 ) | 스터디 여부 | ( O ) | 단권화 여부 | ( △ )

### (1) 스터디

#### ① 스터디를 통해 공부를 했던 이유

저는 임용 공부 기간 내내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 공부 진도에 맞추어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한 저만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성격상 혼자 공부하면 1년 계획이 늘어지고 미뤄지기 쉬우므로, 공부를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함
- ▶ 집단 지성의 발휘 ㅎㅎ 서로 아는 내용은 나누고, 모르는 내용은 보충하며 공부
- ▶ 고립되기 쉬운 수험생 생활 특성상,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

#### ② 2018년의 스터디 커리큘럼

- ▶ 2~6월 : 개론서 + 심화서 인출
- ▶ 7~8월 첫째 주 : 기출분석
- ▶ 8월 둘째 주~11월 : 복습(문답 방식)

2월부터 6월까지 2017년 가을에 마무리 공부를 하며 진행한 스터디 방식인 '인출 중심 스터디'를 했습니다. 각자 정리한 서브노

트, 혹은 개론서나 심화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주제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자 만들어진 인출 목록에 대하여 아는 내용을 한 시간 동안 서술하고, 그 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며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보충했습니다. 이 방식은 스터디원 모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진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재수생 1명과, n수생 3명으로 구성됨)

7월부터 8월 첫째 주에는 기출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기출분석 스터디는 재수 시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분석 범위는 2000년도 이후 문제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n수생이어서 그런지 여름이 되어서야 기출분석을 하니 불안했습니다. 개론서 혹은 서브노트 복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n수생이라면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기출분석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에게는 다년간 만들어둔 기출분석 제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기출분석 자료 작성이 시간 아까웠습니다. 이미 기출 분석을 1~2번 해본 n수생의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풀고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n수생이 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8월 둘째 주 부터는 복습에 들어갔습니다. 10월까지 전공 전체 범위를 2회 복습하겠다는 아무진 다짐을 했습니다! ㅎㅎ 그러나 다짐은 언제나 다짐으로 끝나는데 문제....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시험 전까지 2회 복습했습니다. 저는 한 번 공부할 때 꼼꼼히 보는 편이어서 2회로 만족했지만, 빠르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2회 정도는 가뿐할 것입니다.

복습 방식은 처음 3주 동안 공동 공부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각자 공부 스타일대로 자율적인 공부를 하자는 취지에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스터디원 4명 모두 스터디를 안하면 개인 공부도 잘안하는 타입이라 ㅎㅎ 스터디는 11월 중순까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로 하고, 각자 일주일동안 공부한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각자 자율적으로 공부 스타일과 진도를 조절하며 진행한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스터디원에 비해 공부양이 적으면 스스로에게도 스터디원에게도 부끄러우니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전형적인 수행목표 지향형 ㅎㅎ)

10월 중순부터는 스터디원 중 한명과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전화스터디도 병행했습니다. 서양사 8일, 동양사 8일, 역사교육론은 2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전화스터디 역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효과와 매일매일 한 시간씩 투자하여 빠르게 복습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화스터디도 강력 추천하는 스터디 방식입니다. 외출할 필요가 없으니 외출 준비 시간 및 이동 시간도 절약하고,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인지 잡담도 나누지 않고 문답만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무제한 요금제 덕분에, 요금 걱정도 없었습니다. 시험 막바지라도 가끔 너무 피곤해서 늦잠자고 싶은 날에는 미리 연락하여 오후에 동네카페에서 만나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 동안 카페공부를 즐겨했는데, 2018년에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 대신 위와 같은 상황에는 같이 공부하는 지인과 카페에서 묻고 답하며 공부했습니다. 시험 막바지였지만 한두 번 정도는 기분 전환도 하고 괜찮았습니다.

10월부터 복소년 모의고사를 풀어보았는데,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문제 퀄리티가 마음에 안들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전공 내용 암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5회까지 풀다가 그만뒀습니다. 5회까지 푸는 동안 모의고사 점수는 40~50점 정도였습니다. 부끄럽네요\_.\_;; 모의고사 풀이를 중지한 이후, 계속 개론서와 교과서를 봤습니다.

## (2) 김종권 선생님 온라인 강의

저는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 인스타그램 공부계정 둘러보기가 취미였는데, 역사 임용 수험생들이 김종권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길래 3월의 어느날 임용단기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재수 이후 전공 역사 인강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김종권 선생님의 적중률이 높다는 소문이 들려서 스터디 진행과 인강 커리큘럼을 병행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 역사 인강 1년 커리큘럼 전체를 수강하고, 당해에 합격을 하면 환급을 해준다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거금을 결제하였습니다. 환급이라는 목표가 추가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하고 있던 스터디 진도를 따라가기에도 바빠서 강의는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그래도 3~4월 과정인 수험서 공동읽기가 특히 도움 되었습니다. 스터디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들으며 책을 읽으니 혼자 책을 읽는 것 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노트'라는 복습지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수험서 일부를 발췌하여 빈칸을 만들어 놓은 자료로, 복습하기 좋았습니다.

게다가 환급을 꼭 받아야겠다는 외적 동기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외적동기지만.....환급이라는 목표 덕분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이 저에게는 동기부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 (3) 개인공부 방법

### ① 구조화

저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구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조화를 통해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부터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접하더라도 기존의 저의 도식에 맞추어 정교화하여 저장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딱히 특별한 공부방법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한 공부방법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개론서를 처음 읽을 때에는 문단별 핵심주제와 키워드를 뽑아내어 여백에 메모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개론서 요약 스터디를 할 때에 개론서 여백에 번호를 매겨가며 핵심주제나 키워드를 적은 후, 이것을 뼈대로 서브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구조화가 어느정도 된 이후에는 개론서를 읽고 중요한 부분에 계속 밑줄 그으며 복습했습니다.

② 맥락 이해

서브노트를 만들었지만, 스터디를 하며 만든 것이어서 다른 스터디원이 만든 부분은 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보다는 주로 개론서를 읽었습니다.

서브노트가 아닌 줄글 형식의 개론서를 읽으면 좋은 점은, 요약을 하며 생략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론서는 처음 읽을 때에는 핵심 내용이 책의 일부분뿐인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한 문장 한 문장 버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워드 암기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를 머리에 저장할 때에는 맥락과 함께 저장하는 것이 저장도 잘되고 인출에도 도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주변의 맥락 파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읽을 때부터 그 맥락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힘들겠지요. 반복하여 읽다보면 맥락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핵심 주제 or 키워드 목록 쓰기

개론서를 여러 번 읽어서 더 이상 여백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가을부터는 노트에 키워드를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개론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며 동시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며 공부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목명 | ( 2차 수업실연 ) | 스터디 여부 | ( O ) | 단권화 여부 | ( X )

(1) 수업실연

① 1차 합격자 발표 이전

1차 시험일로부터 일주일 휴식하고, 12월 둘째 주부터 2차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선후배들과, 우연히 소개받은 타학교 2차 경험자를 포함한 5명이 함께 스터디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바탕으로 스터디원들이 각자 주제별(주로 소단원 기준) 수업실연 문제지를 만들어와서 랜덤으로 실연주제를 정하여 25분 구상, 15분 수업실연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직접 구상하기 위하여, 또 피드백에 충실하기 위하여 자신이 말지 않은 주제라도 25분 동안 모든 스터디원이 각자 구상하였습니다. 덕분에 25분에 맞추어 구상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②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발표 다음날 학과 강의실에 모여서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선배 교사들의 O.T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과의 경기 지역 1차 합격자들과 함께 4명에서 팀을 꾸려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수업실연 문제지를 만들어오거나, 현직 선생님들이 제공해주신 문제지를 활용하여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비지도안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안 작성 없이 구상만으로 실연해야 합니다. 수업 능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지에 제시된 '조건 지키기'와 '학습목표 달성하기'입니다. 그 다음은 전체적인 수업 흐름(구성), 유창성, 자신감, 발문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 중심 수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을 고민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③ 수업능력평가 당일

2차 수업실연을 준비하며, 수업실연 만능틀을 만드는 등 노력했으나...새로운 문제유형에 당황하여 준비한 것에 비하여 형편없는 수준으로 실연을 했습니다. 수업실연 조건으로 판서 키워드를 정해주고, 모둠활동지 틀을 제공하며, 유의사항과 채점기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등 이전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했습니다. UCC제작 준비 활동 역시 역사과 수업능력평가에서는 처음 등장한 학습활동이었습니다.

구상실에서부터 당황했고, 실연도 아주 미흡했지만, '조건지키기'와 '학습목표 달성하기'에 집중하여 조건과 학습목표를 90%는 지킨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키기'는 했으나,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도 있고 훌륭하게 해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후배님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된 수업실연 문제지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특이하게 수업나눔 평가를 하는데,,,교수학습방법이나 교육과정, 경기도 교육 정책 등을 공부하면 충분히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 (2) 면접 및 집단토의

경기도 면접과 집단토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경기도 교육청 사이트에서 경기 교육정책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4.16체제, 혁신학교,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잘 익혀둡시다.

면접 방법이나 집단토의 방법 등은 2차 시험 안내 공고문에 나오니 참고하면 됩니다.

면접 답변 방식과 기본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상한', '윤승현 심층면접' 등 교재를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 - 후배 예비선생님들을 위한 학습팁

임용시험 준비기간 동안, 생활 패턴과 체력 및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배 선생님들께 저의 하루 일과와, 체력 및 멘탈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만, 수많은 합격자 중 한 명의 경험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1) 하루 일과(스터디 없는 날)

※ 매일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하루 일과를 소개합니다.

#### (1) 2018년 상반기

저는 아침잠이 많습니다. 밤에는 새벽 2시 넘어서 자고 오전 기상 시간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일주일에 1~2번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추천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아침수영을 했습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허리가 아플 수 있는데, 아침에 수영을 하고 오면 하루종일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영을 하고 오면 너무 피곤했지만, 차츰 적응했습니다. 오전 7시 수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9시에 아침식사를 한 후에 -노닥커라타카- 10시에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독서실에서 도시락이나 간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1~2번은 친구와 외식도 했습니다.

독서실에서 밤 11시 30분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스톱워치로 측정했을 때 평균 6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일찍 일어나 수영장에 가야하니, 늦어도 12시 30분에는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잠들던 것에 비하면 이른 취침;)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이었습니다.

#### (2) 하반기

6,7월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영을 중단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8월에는 다시 수영을 다녔습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데 도움 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수영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는 마지막 3개월 스퍼트를 내자고 생각하여 9시에 독서실에 도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공부 스케줄은 기본적으로 아침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오후에 공부가 잘되면 저녁까지 연속으로 공부하다가 밤9시쯤 집중력에 한계가 올 때쯤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독서실이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어도 집에 오는 길이 무섭지 않아 보통 밤 12시에 귀가했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우면 보통 1시가 넘었습니다.

생활스터디 규칙에 따라 오전 8시에 일어나다가, 위에서 언급한 전화스터디를 했던 마지막 한 달은 오전 6시 30분에 기상했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스톱워치 기준으로 평균 7~8시간이었습니다. 10시간 공부한 날도 몇 일 있었는데,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8시간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밤잠 5시간이었고, 낮잠 1시간이었습니다. 오전9시부터 공부를 하면, 오후3~4시쯤 피곤하고 집중이 안돼서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왔습니다. 저는 밤에 7시간을 자도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휴식을 해야 공부에 능률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낮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체 리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적정 수면시간, 기상시간 등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동안 자신의 생활패턴을 잘 찾아보길 바랍니다.

9월과 10월에 각각 일주일씩은 하루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으로 불탈 때 가끔 무리한 것이죠. 그러나 낮에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집중력이 낮아져서 결국 하루 공부시간에 큰 변화가 없는 등 부작용이 심한 것을 느끼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3시간 수면을 포기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루 5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 공부를 하며 스퍼트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한 해 먼저 합격한 동기가 시험 준비 막바지에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독서실에 오면, 점심·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바닐라라떼를 마시며 버텼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심 한 끼는 건너뛴 수 있지만, 하루종일은 불가능했습니다. ㅎㅎ 그리고 점심 한 끼 건너뛰는 것도 힘들어서 일주일만에 포기했습니다. 식사를 건너뛰기 보다는, 하루 세끼 챙겨먹되, 소식을 하며 식곤증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배고프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휴게실에 가서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스스로에 대한 다짐, 응원, 급히 보완해야 하는 공부 파트 등을 메모하여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 (3) 생활스터디

공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생활스터디도 했습니다. 생활스터디도 전공 스터디원들과 했는데, 일주일에 6일 공부하고 하루 휴식, 한 달에 3번은 휴식찬스를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기상시간과 하루 공부시간을 인증하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상시간은 오전 8시, 하루 공부시간은 처음에는 6시간으로 시작하여 여름에는 8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스톱워치로 측정하는 순수 공부 시간 기준이었습니다. 공부시간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고, 때로는(저주) 벌금을 냈지만, 생활스터디 덕분에 마지막까지 꾸준히 공부 패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2) 체력 및 멘탈 관리

2017년 여름에 수영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며 체력이 좋아지니 정신력도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비타민 등 영양제도 챙겨먹기 시작했습니다.. ㅎㅎ 운동으로도 체력 회복이 안되는 분들은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 차례의 1차 탈락으로 멘탈이 약해지곤 했지만, 속으로는 힘들어도 스스로를 잘 다독이며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표정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면 멘탈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기 힘들 때에는 인스타그램 공부계정을 둘러보며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수험생들에게서 동지애(?)를 느끼거나,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휴식하면서 재충전했습니다.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것은 체력 회복과도 관련있습니다. 체력이 충전되면 멘탈도 다시 충전됐습니다.

저의 합격수기는 어쩌면 이제 갓 임용 공부를 시작할 무렵의 여러분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기를 작성했으며, 저의 합격수기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시행착오 부분은 반면교사의 의미로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공부기간이 길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만큼, 의식의 흐름대로 수기 내용을 작성하다보니 분량이 좀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ㅎㅎ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전공 내용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후배 선생님들, 자신감이 없는 후배 선생님들을 고려하여 공부방법을 더 자세히 쓰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자세히 쓰지 못했네요. ππ(사실 연수원으로 떠나기 직전이라 수기 작성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ππ) 그러나 여러분이 4년 동안 학과 강의를 들으며 쌓는 내공은 생각보다 큼니다. 어쩌면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합격을 좌우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공부하다가 너무나 힘들 때, 괜히 공부가 손에 안잡힐 때, 합격수기를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ㅎㅎ 오랜 공부 끝에 합격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해주신 합격수기는 2019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선생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